

프로젝트 시티즌 연수 참가기

글 · 한선헤 sunhehan@hanmail.net

시민교육에 대한 나의 고민

대안교육 현장 교사는 정작 대안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내가 경험한 교육과 질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없다. 철학과 가치를 담은 교육 형식에 목마르고 프로그램이 좀 잘 된다 싶으면 또 다른 욕구에 부응하느라 고민한다. 대안학교의 교육이념은 가치 중심적이지만 교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근대적 교육방식을 취함으로서 학생을 배움으로부터 도망치게 한다.

시민교육을 가르치는 나는 청소년기에 시민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다. 참여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시민의식을 길러야 된다는 교육목적은 있지만 참여와 실천을 수업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막막하다. ‘정치 주체로 서는 교육’, ‘1인 NGO’, ‘진보교양’, ‘갈등을 풀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팀 활동’ 등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을 잡고 기존의 관련 있는 수업을 살펴봤다.

비폭력평화수업에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수업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NGO를 방문하여 사회참여 방식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또는 ‘앓과 삶’ 사이에서 뭔가 과정이 빠졌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대신 ‘지금 너희의 눈으로 보고 너희의 욕구를 드러내어 참여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주체로 당당하게 어른을 만난 것처럼 이 수업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에서 혹은 공공기관에서 당당하게 공무원들과 이야기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시민단체의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보고 자극을 받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을 떠나고 교사는 어쨌든 학교에 매어있어 NGO 활동가처럼 마을에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역량이 부족하다.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과 논의를 거쳐 프로젝트 방식의 민주시민교육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시민교육이 프로젝트 수업이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프로젝트수업은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 학습자 스스로 동기를 찾아 문제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입력만 있고 출력이 안 되는, 주입식은 있으나 창의성은 떨어지는, 지식과 정보를 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교육 형식에 의존하여 학습자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 나의 교육경험은 미래 세대에 맞지 않다. 둘째, 프로젝트 수업은 일정 기간 동안 명료한 교육 목적을 수행한다. 문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문제 해결 과정은 탐구활동, 표현활동 등 실천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현존하는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슈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배운다. 셋째, 프로젝트 수업은 학습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전개방향이 변화할 수 있고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대화, 의사소통, 토론 등 민주시민의 기본소양을 배우는 과정이다.

프로젝트 시티즌 6단계 실습

프로젝트 시티즌은 미국시민교육센터(CCE, Center for Civic Education)에서 만든 사회참여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 시티즌은 6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공공정책 문제점 찾기 2단계 문제점 선정하기 3단계 문제점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4단계 정책 포트폴리오 개발하기 5단계 정책 포트폴리오 발표하기 6단계 학습경험 성찰하기다. 포트폴리오는 문제점,



사업회 소식

대안정책, 공공정책, 실행계획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시티즌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고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누구에게 제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각 단계가 체계적이며 매뉴얼화 되어 있다. 청소년 대상의 시민교육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대학의 평생교육원 공공정책 개발 프로그램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진행된 4박 5일의 연수 기간 동안 프로젝트 시티즌 6단계를 연습했다. 우리 모듬은 지역의 이슈를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을 사용했다. 토론을 통해 초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매뉴얼북 양식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정책이 될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 기업형슈퍼(SSM, Super Super Market)-골목상권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정하고 최근 서울 우이동 지역에 개장한 SSM인 E점으로 조사를 나갔다.

지역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커뮤니티 워크(communitry walk)이라고 한다. 몇 사람이 현장에서 시장과 영세 슈퍼를 운영하는 상인과 지역 주민을 인터뷰하는 동안 나머지 모듬원은 인터넷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른 지역의 해결사례, 법률 조항을 검토하였다. 우리 그룹에 도봉, 강북지역 시민단체 활동가가 있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지역 정당이나 해당 공무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장 조사를 마친 모듬원들이 들어오고 각자의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정보와 정보가 만나 작은 폭발이 일어나고 폐기되는 정보와 해결책을 떠올리게 하는 정보들을 나누면서 프로젝트 참가자들 사이에는 열기가 더해졌다.

대안정책은 두 가지로 좁혀졌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자치단체 SSM 규제관련 조례 제정이다. 두 가지 대안정책 중 어떤 것을 공공정책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이 오갔

다. 둘 다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 반박, 합의하는 과정이 더디고 힘들었다. 화백회의방식이나 3진아웃방식은 소수자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결을 보완하고 의사 결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는 공동체의 민주적인 토론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포트폴리오 전시물과 자료집을 만들었다. 그 동안의 과정에서 다져진 팀웍이 발휘되는 시간이었다. 미국인 강사 필리스 보이, 글렌 맨



CCE의 강사 글렌 맨스 씨와 필리스 보이

스 씨는 열정이 넘치는 모듬작업에 흥미진진해했다. 교육위원, 지역위원이 심사를 위해 모였고 정책 포트폴리오를 발표하였다. CCE는 프로젝트 시티즌의 교육효과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발표하는 자리에 지역 교육위원을 포함시킨다고 한다.

학교에서 프로젝트 시티즌을 진행할 경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법안’, ‘삼권분립’, ‘도시계획법’, ‘시의회’, ‘발의’ 등 법률용어, 정치개념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 프로젝트 수업은 각 단계마다 도달해야 할 명확한 목표를 정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동력을 잃지 않는데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생소한 개념들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조직이 보수적 성향이 있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교사가 개입할 수도 있다. 교사 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연계에 실패한다면, 또는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이 활동해야 한다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

셋째, 프로젝트수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모듬원 사이 의견이 다를 때 조정 실패하여 심각한 갈등이 되는 경우이다.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위기가 온다. 지루한 토론이 계속될 때, 합의했지만 일부는 행복하지 않을 때, 자기 입장만을 지키려고 할 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협조하지 않을 때 교사는 어떻게 도울까?

프로젝트시티즌을 마치며 이번 교사연수에 ‘있다 3가지’-근사한 저녁파티 있다. 달무리(보드게임의 일종) 있다. 나처럼 멋진 사람 또 있다. 이번 교사연수에 ‘없다 3가지’-밥 맛 없다. 지루한 시간 없다. 공부시간 쉬는 시간 따로 없다.

비전을 갖고 오래 공들인 흔적이 있는 이번 교사연수를 마련해주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연수기간 동안 세심하게 살피준 여러 스태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함께 연수받은 참가자들, 더불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전국단위 MT를 한 것 같다. 연수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자극도 받고 즐겁기도 한 것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글 **한선혜** | 산돌학교 교사



연세대 기록보존소 소장 4월혁명 사료 DB 복제본 수집

글 · 현종철 hjc0123@kdemo.or.kr

4월혁명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료관은 때때로 견학 오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은 4월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 선뜻 말을 못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이번에는 대답할 사람을 지명한다. “그럼, 4월혁명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말해볼래요?”



대다수의 키워드는 ‘부정선거, 이승만, 김주열, 데모’ 등이다.

한두 사람에게 “그럼, 000학생은 4월혁명에 대해 1분 동안 얘기해 볼래요?”한다. 하지만 간혹 1분 정도 말하는 학생도 있지만 4월혁명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어쩌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4월혁명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사료들이 아직까지 집대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50년이 지났음에도 현실은 이런 상황이다.

현재 사료관은 2010년 4월혁명 50년을 준비하면서 4월혁명과 관련된 사료를 집중조사 중에 있다. 1959년 12월 정부차원의 부정선거 획책부터 시작하여 1960년 2·28, 3·15, 4·11, 4·18, 4·19, 4·25 등 4월혁명의 주요 일지를 기초로 하여 4·26 이승만 하야 성명발표까지 관련된 사료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소장하고 있는 사료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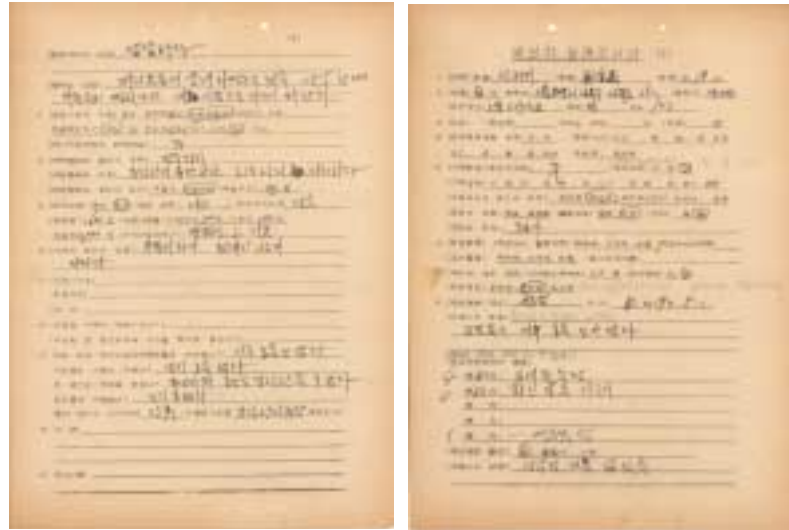
사료관은 먼저 자체 소장한 4월혁명 사료를 조사했다. 당시 현역 일선 기자들이 쓴 ‘四月革命-學徒(사월혁명)의 피와 勝利(승리)의 記錄(기록)’ 등 일부사료와 매년 4월혁명을 기념하는 제 단체 성명서, 행사 관련 사료가 눈에 많이 띄었다. 사진도 400여 점 정도가 소장되어 있다.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료를 조사하던 중에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가 4월혁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문연구자와 4월혁명 관련단체 등 극히 일부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목록이나 DB를 통한 외부공개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연세대 기록보존소장 등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 사료관에서 원 사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DB본을 소장하게 되었다.

이 사료군은 4월혁명 시기를 전후하여 당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4학년생들을 중심으로 ‘4월혁명반’을 구성하여 당시 사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한 결과물로서, 당시 4·19에 참여했던 분이 기록보존소에 기증한 사료들이었다.

총 1,500여 건에 해당하는 이 사료군은 유형상 크게 문건류, 사진류, 박물류 등 세 분류로 구성된다. 문건류는 ‘부상자 실태조사서철’, ‘4·19 목격자 및 인근주민 조사서철’ 등 약 250여 건에 달한다. 사진이 매우 많은데, ‘4월혁명연구반’에서 직접 촬영한 듯이 보이는 사진과 각 언론사(중앙 및 지방언론), 해외언론사 촬영사진 등 다양하며 약 1,300여 점

사업회 소식



이다. 박물관은 선거공고문, 학생수습반 완장 및 플래카드 등으로 그 수량은 많지 않다.

현재 DB가 완료되었고, 원본은 연세대 기록보존소로 반환하였다. 1,500여 건에 달하는 사료는 기초항목 중심의 목록작업이 끝난 상태이며, 추가로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료된 DB와 목록은 2010년 4월혁명 50년을 맞이하여 '4월혁명 사료총집' 발간이나 웹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4월혁명을 배웠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4월혁명을 제대로 교육할 만한 원천자료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학생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없다면 제대로 된 4월혁명의 역사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글 현종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팀장

여러분의 소중한 역사가 담긴 박물관 사료를 수집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물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 집회, 시위, 행사 등 운동 현장에서 배출된 모든 물건

: 현수막, 깃발, 어깨띠, 머리띠, 피켓, 만장, 영정, 대자보, 포스터, 팸플릿, 서명용지, 방명록, 방독면, 조끼, 손수건, 와이셔츠, 수의, 혈서, 기념 티셔츠, 부채, 달력, 카드 등

◆ 민주화에 공헌이 큰 민주인사의 개인 유품, 소장품, 관련 기록물

: 육필원고, 사진, 녹화·녹음테이프 등과 운동 과정에 사용했던 의류, 소지품, 기타 소장 서적, 자료

◆ 민주화운동 단체 창립, 활동, 소멸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산품

: 현판, 로고, 깃발, 플래카드, 팸플릿, 포스터, 사진 등 기록물과 기념품, 선물(배지, 메달, 목걸이 등), 상장, 초대장 등

◆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예술작품

: 걸개그림, 회화, 판화, 만화, 조각 등

- 사료의 부패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항은 항습 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여러분이 기증한 사료를 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 기증한 사료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 등록 절차를 밟아 필요한 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증한 사료 한점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연락처 : 사료관 사료수집담당 권형택 02-3709-7571)

사업회 소식

사업회 임직원, 김대중 전 대통령 국회 분향소 참석



사업회 임직원들은 지난달 20일(목) 서거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 국회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평생을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살아온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되새겼다.

미국 시민교육 프로그램 한국에 첫 선

사업회는 지난달 10일(월)부터 4박 5일 동안 프로젝트 시티즌 교사연수를 실시했다. '프로젝트 시티즌' 교육을 위해 미국의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이하CCE)는 필리스 보이, 글렌 맨스 2명의 교사를 파견했고 지난달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와 시민교육 활동가 30명이 서울 수유리 호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시티즌은 미국 CCE에서 만든 시민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 30개 주와 전세계 80개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CCE 측은 "학생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학생들이 정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나 지역 사회의 갈등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해 가는지를 배우고 체험하도록 돕는 실천형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사업회는 이번 연수 이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22일에는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에 입각한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 대회'를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된 사례 중 우수 작품을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열리는 CCE 주최 '프로젝트 시티즌' 미국 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문의 : 교육사업팀 은영준, 02-3709-7622)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인권캠프 참가자 사업회 방문



지난달 22일(토) 제 15회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인권캠프 참가자들이 사업회를 방문했다.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인권캠프'는 동아시아 지역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현장을 탐방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5회 째를 맞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서울대, 전남대, 제주대, 동아대, 일본의 리츠메이칸대, APU 등 총 6개 대학의 대학생 90여명이 참가했다.

22일 오전 9시 사업회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간단한 사업회 소개를 듣고 이어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함 이사장은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독재정권 하에서의 민주화운동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활동 등을 소개 했다.

일본 동경학예대학원생 사업회 방문



지난달 5일(수) 일본 동경학예대학교 대학생 10여명(지도교수 오이가와 에이지로)이 사업회를 방문했다.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들은 방학을 맞아 나눔의 집, 수오집회, 독립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등을 둘러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국 민주화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사업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사료관을 견학하고 민주화운동사 영상을 감상한 후, 질의응답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87년 6월항쟁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배경과 당시 분위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사업회는 앞으로도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회 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